

간화선 중흥을 위한 전국 선원장 초청 대법회 지상중계 ②

주제 : 화두 드는 법



철실한 마음으로 꾸준하고 용맹스럽게 화두를 들어야 빨리 깨실 수 있다고 강조하는 무여 스님.

사나흘 굶은 이가 밥생각하듯



무여 스님

(봉화 축서사 주지)

‘화두를 어떻게 참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화두공부가 잘 될 것인가’ 하는 화두 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나라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혼란스러우니가 정신적인 불안과 괴로움을 달래고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 절이나 수행처를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같은 현상은 비단 우리 한국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동남아는 물론 유럽과 미국에서도 마음수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동남아시아를 다녀온 스님 말씀이 그곳의 절들이 외국에서 온 수행자들이 복색복을 이루더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아시아의 사제들이 동양적인 수행을 한다고 해서 로마 교황이 대노하셨다’는 기사를 읽은 기억도 납니다. 최근에도 모 신문에서 ‘수행의 봄이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야흐로 수행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행을 한다는 것은 불자든 아니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禪)을 한다’, ‘수행을 한다’, ‘마음공부를 한다’ 하는 것들은 바로 ‘마음을 닦는다’는 말입니다. 특히 수행자들이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공부중에 으뜸인 공부가 바로 마음공부입니다. 최상의 공부가 마음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절대 절명의 공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 조사님들이나 선지식들이 이 마음 공부에 모든 것을 바친 것이지요.

그럼 마음을 어떻게 닦느냐 이것이 문제지요. 마음은 형상이 없어 물체를 닦듯이 쉽게 닦을 수가 없어. 그렇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어렵고 탁한 마음을 맑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마음 닦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흐리게 하는 주범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요. 바로 번뇌망상입니다. 이 번뇌망상 때문에 중생들은 마음을 못잡고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이 번뇌망상을 없애는 작업이 바로 수행입니다.

마음을 바다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가 고요할 때는 잔잔하지요. 하지만 이 바다에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불어올 때는 1미터라도 볼 수 없는 것처럼 일체의 번뇌망상을 걷어내야 마음이 맑고 고요해 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깨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조사들은 마음 닦는데 가장

그러면 화두는 어떻게 드는가? 첫째는 대의정을 일으켜야 합니다. 화두의 생명은 의정입니다. 화두는 오직 의정을 일으켜야 합니다. 화두는 의우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일으키면 크게 깨치고 작게 일으키면 작게 깨치는 것입니다.

둘째는 간절하게 해야 합니다. 옛 조사들은 화두를 들때 간절 절(切)자 하나면 된다고 했습니다. 간절히 하면 화두가 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두 들 때는 간절 ‘절(切)’자를 이마에 써 붙이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간절하다는 것은 오로지 해야 되는 것처럼 성심성의껏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절박하게 하는 것이지요. 즉 며칠 굶은 사람이 밥 생각 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며칠 굶어 보세요. 얼마나 서나 밥 생각했었는지요. 또 사막에서 물이 떨어진 사람이 물 생각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물 떨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절실하게 해야 합니다. 너무도 절실해 눈물이 날

‘성불’, 이마에 써붙이고 애써보세요

좋은 방법을 ‘마음을 놓아라’,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쉬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놓는다’는 말은 일체의 마음작용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번 쉬고 한번 쉬어라’는 말로 다르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부처님 말씀은 바로 쉬면 깨치는 겁니다. 쉬면 근본 자성이 바로 드러납니다. 일체 스님도 ‘쉬면 바로 그 자리가 청정법신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쉬면 그 자리가 부처요. 열반입니다. 열반이란 일체의 번뇌망상이 사라진 자리, 생사초탈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쉽게 마음을 비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중생은 번뇌망상으로 푼돌 문쳐 있어 움직이거나 입을 열면 번뇌망상이 곧바로 쏟아져 나옵니다. 특히 요즘은 책이나 매스컴을 통해 지식을 많이 습득합니다. 하지만 근본 자성에서 보면 이 지식들도 바로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요인입니다. 그러니 현대인일수록 또 지식인일수록 수행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수행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최상은 바로 화두참선입니다.

그러면 화두가 무엇인가? 화두는 참선자가 과제로 채득해서 타파해야 할 문제입니다. 확철대오해서 깨치면 바로 그것이 부처입니다. 간화선은 현대인들에게 알맞은 세계적인 수행법입니다. 현대인들은 옛 사람들에 비해 근기도 약하고, 발심도 잘 못하며 신심 또한 흔들리지 못합니다. 알 모르는 사람에게는 지팡이가 필요하듯이 그래서 의지할 수 있는 수단을 쓸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이 곧 화두입니다. 흔하히 간화선이 어렵다고 하는데 제대로 지도만 받으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식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정도가 돼야 비로소 화두를 제대로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화두는 꾸준하게 씬없이 들어야 합니다. 새벽에 잠에서 깨어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순간도 놓치지 말고 씬없이 꾸준하게 들어야 합니다. 잠시도 중단하면 화두참구가 아닙니다. 옛 조사 스님들은 오뉴월에 닭들이 알을 품듯이 하라고 비유해 줍니다. 닭은 더위에 약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오뉴월의 더위에 알가지 품으면 얼마나 더울까요. 그래도 별에 나가 햇볕을 쬐입니다. 알이 따뜻한 가운데 유지해야 삼칠일이 지나면 건강한 병아리로 태어나기 때문이지요. 이것처럼 여야 하고 꾸준하게 화두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애 쓰시면 쉽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고집스러워야 합니다. 한번 들어 안풀리면 백번, 천번을 들어야 합니다. 전력을 투구해야 합니다. 책은 책장만 대충 넘겨도 내용을 알 수 있지만 마음공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꼭 빠져서 꾸준히 해야 특별한 효과가 납니다. 그렇게 하면 의외로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화두입니다.

간절하게 들다보면 어느날 진짜 의심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화두에 진의(眞疑)라 부릅니다. 의심이 오르면 화두를 놓을래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앉으나 서나 화두가 성성히 맺힙니다. 그렇게 진짜 의심이 나타나면 화두를 제대로 든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되다가 맴다다 합니다.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날까요. 첫째는 발심이 안해서입니다. 둘째는 신심이 흔들리지 않아서입니다. 셋

‘묻고 답하기’ 현장

▲큰 스님들께서는 활구를 들라고 했는데 활구 참선이 무엇입니까.

-화두를 들 때는 사구(死句)가 아닌 활구(活句)가 돼야 합니다. 활구참선이란 화두에 오직 의정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화두에 분별심과 사랑심을 내고 화두가 이렇다 저렇다. 지식으로 알리고 노력하지 않고 사랑분별을 떠나 오직 의정을 일으키는 것을 활구참선이라고 합니다.

▲화두는 수천년 전부터 내려와 현대언어와는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두를 들때는 꼭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화두를 들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현대 선지식들께서 현대인에 맞게 만들어 주시면 안 되는지요?

우주만물이 모두 화두

참선할때 스승 있어야

-화두는 오늘날 스님들이 현대적으로 만들어서도 얼마든지 참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삼라만상 우주만물이 모두 화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옛 스님들의 화두를 권하는 것은 서술에서 산가는 길로 말하면 기존에 있던 길을 가는 것이 쉽지요. 그래서 가끔적이면 새길을 만들어서 가는 것 보다 기존에 나 있는 길을 가면 편안히 빠르게 갈 수 있는 것처럼 화두도 옛 스님들의 말씀은 그대로 믿고 의지해가면 공부가 빠르고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참선은 꼭 스승을 모시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해야 하나요?

-참선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계사든 처사님의 집이든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는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고 저렇고’하고 마음작용이 끊어진 곳에서 발견되는 도리다’라고 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마음과 마음에서 서로 상속하지 않으면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참선에서는 스승의 존재가 절대적입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 얼마나 지도를 잘 받느냐,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가하면 일생동안 별 이익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행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2000만 불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성종사와 (주)벨컨비기업**이 **전자종소리+전자시계+오디오+마이크+청동범종(25관)** 이 모든 기능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21세기 불자의 신개념 전자종들』

가릉빈가

총 25관

※ **법당에 가릉빈가를 설치하시면...**

- 법문을 하실 경우 종 밑 스피커에서 울려나오는 소리가 종속을 통하여 다시 울려라므로 정연한 법문을 불자들에게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가릉빈가에 마이크 및 스피커(2개)를 설치 할 수 있어 법당에 마이크 시설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동경 및 방문 테이프, 명상가오 등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따로 오디오를 마련할 필요가 없으며, 전자시계가 부착 되었으므로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 종을 제외한 종뿐만 구입이 가능하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종을 교환도 가능합니다.
- 원음에 가까운 종소리를 가릉빈가를 통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외에서의 종소리는 심할의 종소리와 같은 생생한 음향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 전자음향종 및 실제 종을 결합한 최 절단의 제품으로 법회시에도 일반종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032-772-5451 / 02-733-6141

www.bellkorean.com

불교성지순례 (주)실크로드여행사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수 있는 성지순례!!

성지순례는 전통있는 실크로드와 함께 최고의 순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인도 성지순례 15일 (불교8대성지와 아잔타석굴) 3월 특가 245만원

▶일 정 : 풀바이-멜로라석굴-아잔타석굴(세계불교미술의 보고)-선지대탑(아쇼카대왕의 걸작)-아그라타지(마하, 아그라성)-싱카시(아도리엔에서 하강하신곳)-바라나시(겐지스강, 초전법륜지, 녹야원)-보드기아(성도지)-라즈기르(법화경설법지영축산, 죽림정사)-나란다대학-바이살리(유마경설법지)-쿠시나카르(열반지)-기원정사(금강경설법지)-카말라성(부처님고향)-네팔국경 통과-롬비니(탄생지)-카투만두 ▶출발일 : 3월 23일

인도 성지순례 10일 (불교8대성지) ▶출발일 : 3월 23일 3월 특가 183만원

중국불교 4대 명산 순례 *10명이상 출발 가능

▶지장보살의 성지 구화산 5일 (남경-구화산 지장성지-천하제일 황산-형주-영은사,서호-상해) 85만원

▶관음보살의 성지 보타산 5일 (상해-형주-영파-보타산-관음현신처 조음동-보제사,낙간산 등-상해) 79만원

▶보현보살의 성지 아미산 5일 (성도-낙산대불-아미산-아미산 정상의 금강만년사 등-성도) 85만원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6일 (조주선사의 백담선사 임제선사의 임제사, 오대산, 운강석굴 등) 95만원

미얀마 성지순례 6일 ▶출발일 : 3월 9일

미얀마 최고의 불교 유적지 순례

▶일 정 : 인친-양곤-바간(2000여개의 불탑-거대한 유적군)-만달레이(58만불의 만보디시원, 최대의 불탑유적과 종)-양곤(세다곤대탑, 까베파고다-진신사리친전)-인친

스리랑카 성지순례 6일 ▶출발일 : 3월 12일, 4월 10일

▶일 정 : 콜롬보-아누라다푸라-수행2500년보리수, 고대불교유적-폴른나투와 불교유적-시기리야 고대왕궁-담불라동굴사원-캔디의 불치사(부처님치사리) *밀림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숲의 나라 최고급 호텔, 식사 등

티벳 성지순례 11일 ▶출발일 : 3월 23일, 4월 20일

실크로드의 수많은 강암으로 특색있는 티벳의 불교성지를 잇어서...

티벳일주11일(티벳 라사에서 히말라야를 넘어 카투만두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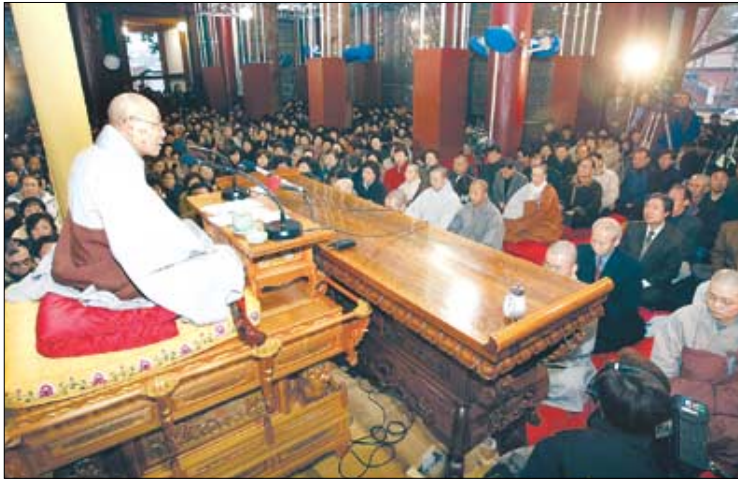
라사-포탈라궁-장체-시기라-라체-시기(에베레스트 등 히말라야, 조만)-장무-카투만두

수미산 순례 24일 ▶출발일 : 6월 4일, 7월 6일, 9월 3일

수미산 순례의 선구자 실크로드가 수미산 순례단을 모집합니다. 수미산 순례는 어렵고 그만큼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며, 실크로드만의 노하우로 수미산 순례를 완벽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조계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2월22일-조계사 대웅전)

간절히 화두 들라



밖은 비가오는 쌀쌀한 날씨이지만 조계사 대웅전은 무어스님의 법문을 듣는 3천여 대중들의 열기로 가득하다.

째는 대분심과 응맹심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면 발심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절로 공부하고 싶게 스스로 진실한 마음을 내야 합니다. 발심이란 발보리심(發菩提心)을 말합니다. 보리심을 내는 것을 말하지요. 즉 자기의 성품을 보아 부

채를 이루고자 하는, 대단한 마음을 발심이라 합니다. 마음공부는 바로 얼마나 발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기필코 이루겠다는 대단한 마음이 바로 발심입니다. 그래서 조사님들은 “화두 안 되는 것을 한탄하지 말고 발심 못한 것을 부끄러워 하라”고 하였습니다. 발심만 되면 다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두를 참구하면 깨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화두에 대해서는 분별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을 내서는 안됩니다. 진정한 믿음만이 불법의 대해를 건널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세

꼭 필요한 마음가짐

기필코 이루겠다는 ‘발심’

깨칠 수 있다는 ‘신심’

왜 나만 안되나 ‘대분심’

끝까지 밀고 나가는 ‘용맹심’

요. 믿음은 암실에서 사진을 현상 하는 것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암실에 빛이 조금만 들어와도 사진을 찍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참연수행도 믿음이 없으면 이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수행의 열매도 큼니다.

셋째는 분심을 내야 합니다. 왜 나는 공부가 안되나, 역대 조사님들도 다 했는데 왜 나만 안되는 것일까 하는 분한 마음을 내서 애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두 안되고 수행이 안되는 사람들을 ‘밥값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여기에 의의가 켜져, 화두가 켜지 모르시는 분들 없으 겠습니다. 하지만 지극한 마음으로 해보지 않아서 화두를 깨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 ‘주리반탁가’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분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라 저능아에 가까웠어요. 부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고 사귀

수가 없었지요. 무엇을 시키면 하다가도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도 잊어버리고 우두커니 서 있고는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하도 답답해서 “너는 다른 일을 하지 말고 먼지를 털고 때를 씻으라” 그것만 계속하라고 하니 “먼지를 털고” 하다가는 “때를 씻으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또 “때를 씻으라”를 하다가는 “먼지 털고”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 참 바보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게 잘 잊어버리더니 계속 열심히 외우고 끈질기게 하니가 일념으로 정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도 깨침을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안합니까. 화두가 안되는 사람은 ‘성불’이라고 이마에 써붙이고 애써보세요.

넷째는 용맹정진을 해야 합니다. 특히 근기가 약한 사람일 수록 용맹정진해야 합니다. 흔히들 잠 안자고 하는 걸 용맹정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잠은 충분히 자고 할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어떠한 사랑과 난관에도 용맹스럽게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용맹정진입니다.

참선자가 주의할 것은 진의가 나더라도 더욱 힘차게 화두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화두는 성성하면서 도적하고 고르게 조화를 이뤄야 깨칠 수가 있습니다. 화두를 깨우치면 몸이 가볍고 편안해지며 평소 이해가 안되던 경전도 술술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지혜가 생길 수록 더욱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식(識)이 맑아져 법당에 앉아서도 부산까지 내다볼 수 있는 심안도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절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더 정진해서 통달하게 되면 생각까지도 초탈할 수 있는 자신만만한 힘이 생깁니다. 자만에 빠지면 지혜가 없어지게 되니 꾸준한 참구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더 지극한 경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속에서, 마음속에서 느끼는 극락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마음공부를 통해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 늘 즐겁고 기분이 좋은 상태, 행복한 경지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부는 잘 될 수록 항상 조심하고 주의하면서 겸손하고 낮춰야 합니다. 그러면 일취일장하고 경지가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수행자는 늘 자기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시정하고 보완할 점은 무엇인가 하는 반성을 통해 자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는 오늘과 내일이 더 좋은 사람일 수 있도록 지혜롭게 점검해 나가십시오.

정리=김주영 기자 · 사진=백재원 기자

“법문, CD와 테이프를 보고 들으세요”

고우 스님의 법문을 비롯해 2월 15일-5월 9일 진행되는 선원장 초청법회의 법문을 동영상 CD와 테이프 등으로 다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문의=조계사(02-732-2115), 여시아문(02-737-8881) 법회 동영상 총계 www.jogyesa.org www.buddhanews.com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9>



꽃 향기를 흠친 사람

깨끗하게 목욕하고 새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사람은 결코 더러운 진흙탕 물에 가까이 가려하지 않을 것이다. 한 방울의 진흙탕 물이 튀어 옷에 묻어도 속상해 하며 빨리 없애려고 한다. 하얀 웨딩 드레스를 예쁘게 차려입은 신부 에겐 아주 조그마한 불렌 자국도 아주 크게 보이며 부끄러울의 원인이 된다. 백색의 드레스엔 한 점의 얼룩도 눈에 잘 띠며 수치스럽게 여겨진다. 반면에 이미 얼룩이 많이 저 있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더러운 진흙탕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 방울의 진흙탕 물이 옷에 튀어 묻어도 그것으로 인해 옷이 더 더러워졌다고 속상해 하지 않는다. 이미 더러운 옷에 더러운 오물이 좀 더 묻어도 상관하지 않는다.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러 경찰서에 잡혀 있는 죄인을 보았다. 그 사람은 모자를 깊게 쓰고 고개를 아래로 많이 숙여 자신의 얼굴이 텔레비전 카메라에 잡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애쓰고 있었다. 이런 자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취해지는 것이다. 자신이 한 일이 옳지 않고 땃땃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

고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 그대는 주여지지 않았는데도 일반적으로 향기를 취하고 있으니 도둑이다.” 그때 마침 한 사나이가 연못에 와서 연꽃을 꺾고 연뿌리를 캐어 잔뜩 집어지고 갔다. 이에 비구는 천신에게 말했다. “저 사내는 어떻게 연꽃을 해치고 연뿌리를 뽑아 가지고 가니, 저 사람이야말로 사악한 도둑이다. 그런데 어찌해서 저 사람은 딱지 아니하고 나 비구만 도둑이라고 하는가?”

천신은 타일했다. “사악한 사람은 더러운 옷과 같다. 더러운 옷에 오물이 묻어도 표시가 나지 않는다. 검은 옷에 먹물이 묻은 것과 같다. 하얀 비단 위에 조그마한 파리 한 마리만 앉아도 눈에 잘 드러난다. 깨끗한 천연 한 방울의 먹물도 잘 보인다. 이미 더러워진 인간에게 충고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그대와 같이 청정한 행위를 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다. 청정한 수행을 하는 자에겐 비록 털갈 만한 작은 허물도 태산과 같이 드러나 보이는 것이다.” 비구는 천신의 말에 감사하고 수행하여 아라한이 되었다고 경전을 끝맺고 있다. 너무 허물이 많은 이에게 꾸짖어도 소용이 없으므로 상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천신이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니 비구는 감사하게 받아

나쁜 행동 반복하면 수치심 못 느껴 울지 않은 일 사소한 것도 멀리해야

을 알고 있는 것이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끄러워 할 줄 아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그런데 자신이 저지른 나쁜 행위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면 자율적으로 선하게 살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엄격한 법으로 디스려야 한다. 몇 십억, 몇 백억의 돈을 불법으로 모아 놓고도 부끄러워 하기는 커녕 발뺌하기에 급급한 사람들을 보면 다음의 경전이 생각난다. 잡아 함정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부다가 사위성의 기원정사에 머물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다. 한 비구가 눈병을 앓게 되자 스승이 연꽃의 향기를 맡으라고 하였다. 비구는 연꽃이 피어있는 연못가로 가서 바람을 맞으며 앉아 있었다. 바람을 타고 오는 꽃 향기를 맡으며 앉아 있을 때, 연꽃을 지키던 천신이 다가와 말했다. “그대는 왜 꽃을 훔치고 있느냐? 지금 꽃의 향기를 도둑질하고 있지 않느냐?” 비구는 대답했다. “꽃을 꺾지도 않았고 다치게 하지도 아니하고 멀리서 향기만 맡았거늘 어째서 나를 향기를 훔치는 도둑이라고 하는가?” “스스로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취하는 것을 도둑이라

들인 것이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악행을 그만두고 선행을 할 수 있다. 나쁜 행동을 처음 저지르면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강하게 느끼다가 한번 두번 자주 반복하게 되면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결국엔 사악한 범죄 행위를 하더라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 얼굴 가죽이 두껍게 되어 무슨 일이든지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착한 마음을 잘 길러 사소한 것일지라도 울지 않은 일을 멀리 해야 하는 것이다. 남이 보는 앞에서만 부끄러운 마음을 지닌다면 그것은 반쪽 양심이다. 남이 보든 안보든 그릇된 일에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온전한 양심이 될 것이다.

윤동주 시인의 서거를 생각났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죽을 때까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또한 조그마한 잘못에도 괴로워했다고 고백하는 시인의 맑은 마음이 부럽다. 잘못에 대한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모든 생행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다. 동국대 불교학과(경주)



■ 무어 스님

1940년 경북 김천에서 출생, 오대산 상원사에서 회심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이후 상원사, 동화사, 송광사, 해인사, 관음사, 칠불사, 망월사 등 전국 선원에서 40여 년 동안 수선안거 했다. 1987년 이후 봉화 축서사에 주석하며 불자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있다. 칠불사와 망월사 선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조계종 기초선원 운영위원으로서 선의 가풍을 세뭇물 정립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화제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건강도지키는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北韓産 金剛念珠

생육관선과 금강의 강한 힘이 발산되는 신비의 금강염주

이런분은 스님께 보시 또는 본인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 ◆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
- ◆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분
- ◆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분
- ◆ 연분을 찾고 계신분
- ◆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
- ◆ 투병중인 분
- ◆ 고시준비 하시는 분
- ◆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부처님께로 가까이

염주는 부처님께로 기고자 하는 마음의 비구 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 하며 경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 됩니다

염심이 들어간 12단주를 제작하였으니 기도 정진하시는 스님 및 불자들에게 주운 편에 합니다.

금강의 밝은 지혜와 강한 힘으로 건강을

금강염주를 빚거나 거칠에 곁여놓으면 금강의 강한 기와 93%의 생육관선, 음이온등이 발산되어 현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 OA사무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차단하며 도심의 좋지 않은 공기 환경속에서 건강이 약해지는 스님 및 불자들의 건강을 도와드립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며 피로회복, 신경안정, 스트레스해소, 활력순환 등에 효과 있는 세계유일의 금강염주입니다. 밝은 지혜와 금강의 강한 힘이 발산하는 금강염주는 기도 정진시 일념무야 하면 부처님 가피로 고시준비나 어려운 일이 있으신분은 뜻을 이룰수 있는 신비의 금강염주입니다.

2가지 소원이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며 세계 유일의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원효대사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금강염주는 점안식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신용카드도 분할구입 가능합니다.

* 12단주와 108염주 1set 가격 195,000원

*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편물 발송으로 전액 아니나 받아 편지를 하고 배송해드릴 수 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11층 B/D 406호

스님 불자님께 드리는 편지

신제품 식물성 양초

실용신인특허 0293571호

귀의 삼보화유고

금번 저희 삼환양초에서 식물성 양초를 개발(실용신인특허) 공급합니다. 지금까지 양초는 석유에서 추출한 파라핀 왁스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양초가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그을음, 냄새 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고심하던중, 동남아 모처에서 생산하는 팜(식물성 아자일레)왁스로 양초를 만들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00% 식물성 양초를 만들 수 없지만 가까운 시일내 100% 식물성 양초를 만들 수 있도록 삼환양초 가족일동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스님, 불자 여러분의 지도 편달을 기다립니다.

‘이제는 건강을 생각하여 양초도 선별하며 사용할 때입니다.’

◆ 선진국 소비자들의 양초선별 방법

1. 삼지가 면사로 되어있는지<국내제품 면사로 제조>
2. 원료가 식물성 인가

* 미국, 구라비 등지에서는 콩, 옥수수 등 식물성으로 만든 양초 선별사용

- ① 전사지양초(오랑이, 용, 반야심경) 지름 7.5cm x 45cm
- ② 상용(용이마주포고 있음) 지름 8.3cm x 30cm
- ③ 전사지)용 - 지름 9.2cm x 31cm
- ④ 전사지)반야심경 - 지름 9.2cm x 31cm

- ⑤ 원기병 양초 지름 7.4cm x 29cm 전사지, 반야심경, 연화, 용, 호랑이, 무지개, 금박, 오랑이, 용

식물성 양초의 특징

- 그을음이 없어 실내공기정화에 도움을 준다.
- 양초 연소시 발생하는 냄새가 적다. (거의 없음)
- 양초 연소시간이 일반양초보다 약 20 ~ 30% 길어진다.

삼가제품의 모든 양초를 만드는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제품에 대하여 문의하시면 제품설명서를 무료로 우송하여 드립니다.